

# ‘인문학에서 찾는 인생의 행복’

정읍단풍아카데미 28일 연지아트홀 공연장서

경상대 중문학과 한상덕 교수 시민대상 특강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오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읍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경상대학교 중문학과 한상덕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에서 찾는 인생의 행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이번 특강은 올해 마지막 특강인 제75회 정읍 단풍아카데미 일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고전 속 한자문구를 풀이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자연과학은 현대문명의 양적 팽창을 지탱한 자연현상의 객관적 존재를 다루는 데 반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인간 가치의 존엄성 훼손이 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의 답이 ‘인문학’에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9년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정읍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교수는 경상대학교 중문과 학사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석사 과정을 거쳐 중국 무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중국 호북대학 중문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상대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상을 2년 연속으로 받았으며, 경남인재개발원 베스트강사 도지사상도 수상했다. 한 교수는 다소 딱딱해 보이는 고전 속 한자문구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문학 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공유,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다’

국립태권도박물관, 오늘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기증특별전 개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공유(共有),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다’ 기증특별전을 개최한다. 오늘부터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증특별전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이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증받은 유물들 중에서 미공개 되었거나 전시 기회가 드물었던 유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도복·보호구·메달 등 태권도 관련 유물과 사진과 VHS(비디오테이프) 등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이번 기증특별전은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준 기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기증자의 소중한 뜻이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향후 유물 기증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기증특별전 관람은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늘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태권도원 휴관일을 제외하고 관람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kr/)와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tkdwon.kr/kr/)와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가 지난 3일 진안 문화의집에서 수원문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진안문인협회-수원문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지역 문학 확장기로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회장 이병을)는 지난 3일 진안 문화의집에서 수원문인협회(회장 박병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창작품 상호 게재를 통해 지역 문학을 확장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안문인협회는 수원문인

협회의 다양한 문화공연·전시회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인적·시설자원, 자료 등 이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진안문인협회는 92년에 창립한 이래 진안 문학의 발전, 진안문학 기록 및 주민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낭송회, 백일장대회, 시

화전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병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문인협회 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문학발전과 문화지연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단 기자

## 부안군, 어린이 국악 공연 ‘우리 소리가 좋아요!’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 ‘우리 소리가 좋아요!’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소리예술단이 기획하고 부안군이 주최하는 ‘우리 소리가 좋아요!’ 공연은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창작음악극으로 등장인물로 나오는 소리인니와 장단을 따라 국악기 나라를 여행 다니면서 다양한 국악기가 들려주는 동요를 듣고, 국악과 친숙해지는 에듀테인먼트형 창작음악극이다.

또한 아이들이 악기 소리를 듣고 퀴즈를 맞히고, 무대에 올라 직접 악기를 체험하는 통합예술(공연·체육·교육)로 이뤄진 공연이다. 가야금, 피리, 아쟁, 대금, 소금, 해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코코몽, 정글숲, 웅달샘, 아기공룡 둘리, 곰세마리, 뽀로로 등 현대동요와 전래동요를 국악기로 친근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온소리예술단은 2004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13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약 80여 회의 초청공연으로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해 전북 지역내 국악관련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력 있는 국악단체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설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공연이 아름다운 우리기락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공연은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선착순 무료(모든 연령 관람가)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이복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